

-(으)ㄴ/는 격이다

~하는 격이다 — ~하는 것과 마찬가지로

어떤 행동을 다른 것, 주로 속담에 빗대어 평가합니다. 격은 사물의 모양새나 처지를 뜻하며, 이 구문은 그 행동이 어떤 모양새인지를 말해 줍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동사	-는 격이다	치다 → 치는 격이다
완료된 행동	-(으)ㄴ 격이다	한 격이다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격이다
앞 절	비유이지 글자 그대로가 아님	계란으로 바위를 치는
띄어쓰기	격은 명사	치는 격이다
글자 그대로의 어림	-(으)ㄴ/는 셈이다	다 한 셈이다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관형사형 체계를 따릅니다. 동사는 -는 격이다, 완료된 행동은 -(으)ㄴ 격이다를 씁니다. ㄹ로 끝나는 어간은 ㄹ이 탈락하며, 격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앞 절은 글자 그대로의 묘사가 아니라 비유입니다: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뜻입니다.

비유로 평가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주 가져다 쓰는 것이 속담입니다.: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, 언 발에 오줌 누는 격,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격.

평가는 거의 항상 비판적입니다. 비유를 통해 그 행동이 헛되거나 앞뒤가 바뀌었거나 어리석다는 것을 드러냅니다.

■ 예문

- 1 지금 항의해 봐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.
- 2 사고가 난 뒤에 규정을 고치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군요.
- 3 임시방편일 뿐이라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었다.
- 4 그렇게 하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격입니다.
- 5 기초를 건너뛰고 응용부터 하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이다.
- 6 결국 남 좋은 일만 한 격이 되었다.

■ 비교

-(으)ㄴ/는 셈이다
꼭 구별해야 할 짝입니다. 셈이라는 글자 그대로 따져서 거의 같다고 어림하는 것이고, 격이라는 비유로 평가하는 것입니다.

거의 다 한 셈이다. (사실상 다 함) /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다. (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음)

-(으)ㄴ/는 듯이
뜻이는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묘사하고, 격이라는 그 행동이 결국 무엇과 같은지 판정합니다.

아는 듯이 말했다. (아는 것처럼 말함) / 아는 척하는 격이다. (아는 척하는 것과 같음)

-(으)ㄴ/는 실정이다
실정이라는 상황을 중립적으로 전하고, 격이라는 비유를 통해 평가를 내립니다.

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. (예산이 부족함) /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. (임시방편에 불과함)

■ 주의

- ✗ 부품까지 직접 만드는 격이다.
- 부품까지 직접 만드는 셈이다.
ㄹ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사형 체계 전반에서와 마찬가지로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일을 거의 끝낸 격이에요.
- 일을 거의 끝낸 셈이에요.
글자 그대로 어림할 때는 셈이다를 씁니다. 격이다에는 평가의 기준이 될 비유가 필요합니다.
- ✗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은 격이다.
-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은 셈이다.
격이라는 헛되거나 앞뒤가 바뀐 일을 드러내는 말입니다. 결과가 괜찮으면 비판할 거리가 없습니다.